

<디어데이즈> '성울' 역 지원자용 대본

[등장인물 소개]

성울 | 20대 후반의 여성.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외유내강의 인물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편은 아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한다. 처음으로 '꿈'이 생기면서 잔잔한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장 |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앤드 라이브카페'의 사장. 살갑고 유쾌한 분위기메이커지만, 삶과 음악을 대할 때만큼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과거에는 그도 록밴드의 보컬이었지만, 일련의 사정으로 음악 생활을 포기하고 라이브 카페를 차렸다.

현수 | 음악인이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다는 뮤직 프로덕션 '소리'의 매니저. 겉으로는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다정한 일잘러다. 담당 작사가들을 잘 챙기는 은근히 인간적이다.

#1. 울의 집 (아침)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울린다.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울. 울은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잠을 깨운다. 식탁 위에 놓인 늘 먹던 편의점 빵 봉지를 집어 입으로 대충 뜯고 빵을 먹는 울. 여전히 비몽사몽한 상태다. 울은 빵을 천천히 오물거리며 식탁 위에 놓인 작사 노트를 집어든다. 어제 써놓은 가사를 슬쩍 읽어보던 울은 마음에 드는 듯 미소를 짓는다. 이내 작사 노트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하기 시작한 울. 휴대전화에 쌓인 알람을 확인하던 중, '소리 뮤직'이라 적힌 이메일을 발견한다.

울 (핸드폰을 바라보다) 응?

놀란 울은 빵과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책상으로 달려간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노트북을 켜고 메일함에 들어가보는 울. 소리 뮤직에서 전속 작사가로의 영입을 제안하는 이메일이 와 있다.

울 (메일을 소리내어 읽으며) 성울 씨를 '소리 뮤직'의 전속 작사가로 영입하고 싶습니다아? 헐? 소리 뮤직? 작사가?

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깜박이며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다 한 곳에 멈춘다. 계약금을 보여주는 노트북 화면.

울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짚으며) 잠시만... 계약금이...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7백만 원...!?

한 손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둔 채, 다른 손으로는 입을 막는다. 놀람과 기쁨이 공존하는 표정. 눈과 입이 동그래지도록 놀랐지만 금세 웃음이 새어 나온다.

#2. 율의 집 (밤)

늦은 밤 작업을 끝낸 율은 침대에 눕는다. 잠은 쉬이 오지 않고 율은 계속해서 몸을 뒤척인다.

율 내일 미즈 엔터 피드백 확인하고, 목요일까지 아이디어 스케치 끝내야 하고... 하...

눈은 감았지만 생각에 잠겨있던 율은 결국 찌푸린 눈을 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 가사를 쓰던 율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펜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작사 노트를 노려본다. 그러다 가사가 적힌 페이지를 찢으며 한숨을 깊게 쉬는 율.

책상에서 일어나 침대로 돌아가려던 그때,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율은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전화를 힐끔 쳐다봤다가 시계를 본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율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율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 무슨 이 시간에 전화야, 매너없게.

휴대전화에 떠 있는 '신현수 소리뮤직 매니저' 이름. 발신자를 확인한 율은 표정이 조금 풀린다.

율 (차분하게 깔린 목소리로) 여보세요.

현수 (V.O.) 여보세요? 율 씨, 새벽에 진짜 죄송해요. 좀 급해가지고.

율 (여전히 약간은 낮은 목소리로) 아,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현수 (V.O.) 지난주에 오디션 프로 파이널곡 작업해서 최종본 넘겨 주신 거 있잖아요.
(한숨을 쉬며) 그제, 그쪽에서 싸비를 챌린지용으로 좀 캐치하게 바꿔달라고 해서요.

율 아... (눈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넘긴다) 그래요? 싸비 전부름요?

현수 (V.O.) 네, 전부요. 파이널 촬영이 2 주밖에 안 남아서 당장 모레까지 달라는데... 제 선에서 컷 했어야했는데 죄송해요.

율 모레... (체념한듯 눈을감고 입술을 깨문다) 네, 해야지.. 할게요.

현수 (V.O.) 네, 제가 수정할 내용 정리해서 아침까지 보내드릴게요.

율 네, 메일 확인할게요.

전화를 뚝 끊은 율.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사를 써보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에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주위에 구겨진 종이 뭉치만 점점 늘어나고, 율은 결국 책상을 떠난다.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새하얀 노트.

S#3. 라이브카페 (밤)

긴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은 율과 사장. 테이블 위에 가득 놓인 각종 주전부리들.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던 율은 사장에게 조심스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율 사장님, 저는 옛날처럼 음악에 관심이 아예 없으면 없었지, 재미가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장 재미? 재미는... 뽀루지 같은 거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랬다가도 다시 생기지.

율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며) 에...?

사장 음악이 재미 없어졌다는 건, 네가 음악이랑 아주 아주 많은 대화를 하고 왔다는 거야. 많이 듣고, 쓰고, 지우고, 흥얼거리고, 중얼거리고, 그랬겠지.

율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씁쓸한 표정으로) 그런데 맨날 데모 받아서 가사 쓰고 회사에 넘기고, 또 받고 쓰고 넘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매일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삶에 무뎠어지는 게, 뭐랄까... 무서워졌어요.

사장 음악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음악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음악이라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일만 남거나. 그럴 땐 막 질주하다가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더라. 내가 떨구고 온, 진짜 원하는 음악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되거든.

율 진짜 원하는 음악? 저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장 나도 어릴 땐 몰랐는데, 있더라, 그런 게.